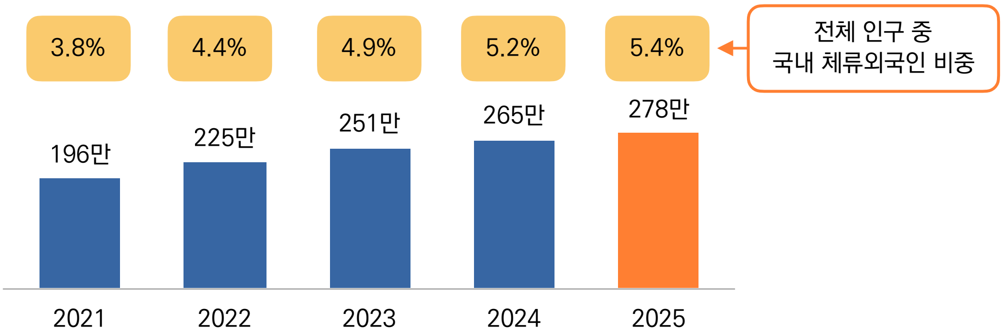
국내 체류외국인 278만 명, 4년 새 82만 명 늘었다!

- K-컬처의 확산과 취업·유학 등 영향으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.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6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8만 명을 기록했다. 4년 새 82만 명(42%)이나 급증한 수치이며, 전체 국민의 5.4%를 차지했다.

[그림] 국내 체류외국인* 현황 추이 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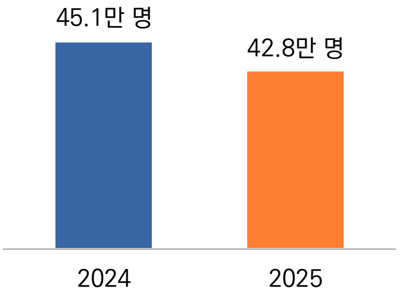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법무부, 출입국통계(체류외국인)_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(https://www.moj.go.kr/moj/2412/subview.do)
*체류외국인은 해당 연도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장 · 단기 체류외국인 전체를 의미하며,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함.
Note) 전체 인구 중 국내 체류외국인 비중은 해당 연도말 주민등록인구통계 베이스로 산출함.

한국 입국 외국인 1위, 중국 제치고 '베트남'이 차지!

- 국가데이터처의 '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'에 따르면 국내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는 2025년 42.8만 명으로 전년(45.1만 명) 대비 2.3만 명(5%)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
- 국적별로 보면 2025년 기준 '베트남'이 9.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'중국'(9.4만 명), '미국'(2.3만 명) 순이었다. 주목할 점은 200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'베트남'이 '중국'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.

[그림] 외국인 입국자 수 (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)
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, 2026.07.09.

[표]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변화 (상위 5위, 2024~2025)

순위	2024	2025
1	중국 11.2만 (25%)	**베트남 9.8만 (23%)**
2	베트남 8.8만 (20%)	중국 9.4만 (22%)
3	미국 2.3만 (5%)	미국 2.3만 (5%)
4	태국 2.1만 (5%)	네팔 2.2만 (5%)
5	우즈베키스탄 1.7만 (4%)	우즈베키스탄 1.8만 (4%)